

‘문제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 재시험 없이 정시 이월 가능성

연세대, 법원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서 등 제출
수험생, 본안 신속 진행 요청
교수노조, 재시험 실시 촉구
법적 공방 장기화 가능성 커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재훈 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연세대학교가 ‘문제 유출’ 논란을 겪는 수시 논술전형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지 않고, 해당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이라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은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을 내면서다. 이에 학생들에 이어 교수단체까지 “논술 재시험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냈다. 앞서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을 논

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학 측이 바로 사실상 항고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지난달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지를 1시간가량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인터넷에 유포됐다.

연세대는 수시 해당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던 인원은 정시로 이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측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연세대는 논술시험 후속 절차 진행 중지에 대해 15일 이의 신청을 하면서,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다시

내려지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 논술시험 모집인원의 정시 이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논술시험 재시험 이행이 아닌 정시로 이월할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당초 해당 전형의 합격자 발표일은 내달 13일이었다.

이에 해당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수험생들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재판부에 본안 진행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 측이 그저 시간만 끌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부도 1만여명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제재를 통해 연세대가 신속히 재시험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수단체도 연세대에 논술 재시험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이날 “연세대는 지난 12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관리·운영 부실을 초

래했고,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라며 “지금이라도 논술시험 재실시를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시 이월은) 학생 기대와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학입학전형 위원회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결국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 전원의 사퇴로까지 확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연세대 사안을 두고,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재시험을 볼 경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가 되레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면서도 “반대로 연세대가 해당 수시 논술전형 응시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경우에도 (수시 논술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점검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점검 예정
불법행위 시 행정지도, 수사 추진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를 막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시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민원

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 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중개보조원 직무 범위와 불법 행위 시 처벌 규정 안내 등 행정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서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내년 3월 15일까지 지정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브이(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cm에서 예상적설량 10cm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와 대응이 좀 더 빨라지게 됐다. 또한 도는 한파 재대본 협업부서에 노동안전과와 노동권익과를 추가해 겨울철 취약한 노동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11월 말 완료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선제적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올겨울 대설, 한파에 대비한 기본 준비를 마쳤다.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도 기금과 특교세 65억 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 완료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취약계층 유아 정서·신체 발달 지원

내년부터 ‘서울런 키즈’ 사업 시범운영

서울시가 취약계층 유아에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촉진하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 건강한 정서적·신체적 발달을 돕는 ‘서울런 키즈’ 사업을 내년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18일 6개 민간업체(단비교육, 메가스터디교육, 아이스크림에듀, 에누마, 웅진씽크빅, 천재교과서)와 ‘서울런 키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유아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민간업체의 시범 사업 참여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4~5세 유아는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6개사의 유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약 10만 개), 기기,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리틀훈런(아이스크림에듀), 밀크T아이(천재교과서), 스마트올 키즈(웅진씽크빅), 엘리하이키즈(메가스터디교육), 윈크(단비



‘서울런 키즈’ 업무협약식 모습. /서울시

교육), 토도원(에누마)의 콘텐츠가 제공된다.

콘텐츠 주요 내용은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을 읽고 한글 익히기 ▲동요를 따라 부르며 몸 움직이기 ▲기본생활 습관 실천하기 등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6 | 해질 / 17:19

11월 19일 (화)
음력 : 10월 19일

수도권 날씨
0 ~ 1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9, 동두천 -4/9, 가평 -4/10, 파주 -4/9, 서울 0/10, 양평 -2/10, 인천 2/9, 수원 0/9, 용인 0/9, 평택 -2/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트럼프 주니어 “명칭한 짓” 비난
▲트럼프, 재무장관 후보 고심... “관세 부과 의지 요구” /사진 뉴시스

▲핀란드 등 북유럽 3국 ‘전쟁 주의보’... ‘비축물자 및 생존법’ 팜플렛 발송
▲브라질서 G20 정상회의 개막... 트럼프·기후변화 대응 논의



▲영 스타머 총리, G20에서 시 주석과 회담... 英-中 정상 6년여만 /사진 뉴시스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압도적 성과로 미국방부·나사에 영향력 ↑”